

제주도정 도민평가 현안따라 엇갈려

■ 언론3사 제21대 국회의원선거·현안 여론조사

코로나19 대응 '긍정'... 갈등조정엔 '부정' 평가
 지역경제활성화 가장 해결 시급한 현안으로 꼽아

제주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코로나19 대응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제주현안에 대한 갈등조정은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또 도민들은 제주의 가장 시급한 해결 현안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꼽았으며, 제주 최대 갈등 현안 중 하나인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 방안으로 '주민투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라일보와 제민일보, JIBS 등 도내 언론 3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지역 3개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2455명(제주시갑 815명, 제주시을 821명, 서귀포시 8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7일 발표된 2차 지역현안 여론조사 결과다.

조사결과 제주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관리 등 대응을 잘하고 있는 지 물은 질문에 83.1%가 '잘하고 있다'('매우 잘함' 33.2%, '잘하는 편' 49.9%)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15.3%('매우 잘못함' 4.2%, '잘못하는 편' 11.1%)였다. 모름·무응답은 1.6%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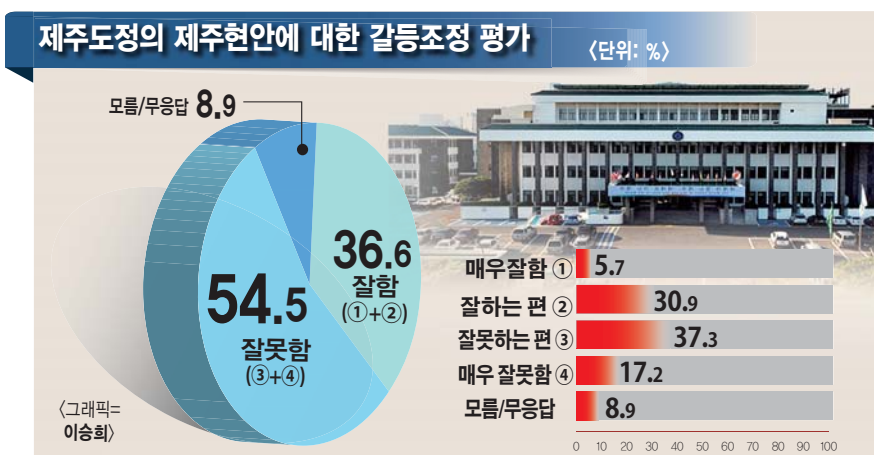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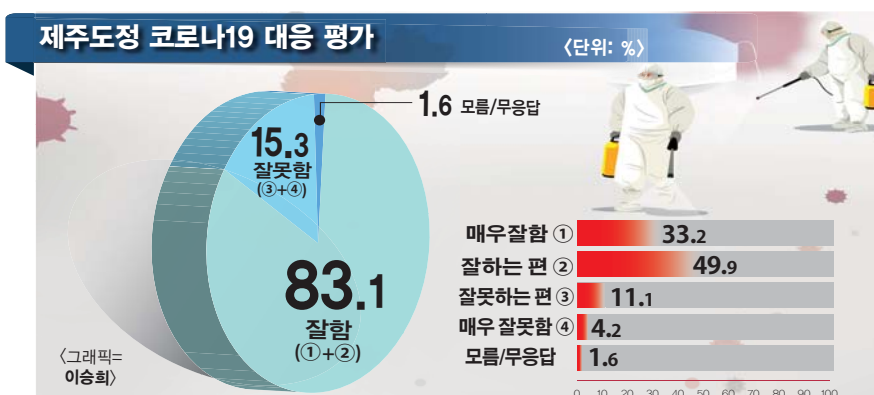
긍정평가는 선거구별(제주시갑

83.1%, 제주시을 82.2%, 서귀포시 84.3%) 고루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상대적으로 50대 이상(86.6%)이 40대 이하(80.0%)보다 높았다.

직업별로는 농·임·축산업이 86.9%로 상대적으로 긍정평가 비중이 가장 컸고, 수산업이 75.1%로 가장 작았다.

반면 제주도정의 제2공항 등 지역현안에 대한 갈등조정 평가는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54.5%('매우 잘못함' 17.2%, '잘못하는 편' 37.3%)로, '잘하고 있다'는 36.6%('매우 잘함' 5.7%, '잘하는 편' 30.9%)의 긍정 평가를 앞섰다. 모름·무응답은 8.9%였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51.1%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표했다.

연령별 부정평가는 40대 이하가 60.5%로 50대 이상 47.6%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40대가 65.3%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이 42.5%로 가장 낮았다. 이념성향별 부정평가는 범보수(보수+중도보수)가 43.4%, 범중도(중도보수+중도+중도진보) 57.3%, 범진보(중도진보+진보) 64.9%로 나타났다.



가장 시급한 해결 현안 1순위는 41.8%가 선택한 '지역경제활성화'였다. 이어 제2공항 갈등 해소 18.8%, 난개발 방지 17.7%, 쓰레기·하수 등 생활환경 분야 15.9%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4.0%, 모름·무응답은 1.9%였다.

가장 좋은 제2공항 갈등해소방안으로는 '주민투표'가 40%로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계획대로 추진'이 29%로 뒤를 이었다. '공론조사'는 19.4%, 제주도의회 특위활동 결

과 수용은 4.2%, 모름·무응답은 7.5%였다.

세부지역별로 보면 조천·구좌·우도와 동부 읍·면, 동부 동지역이 '주민투표'보다 '계획대로 추진'을, 특히 제2공항 건설 예정부지와 인접지역인 동부 읍·면지역(남원·성산읍, 표선면)에서 '계획대로 추진(49.7%)'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각 선거구 ±3.4%p)다.

오른기자 ejo@ihalla.com

이런 국회의원을 원한다 ②자영업·소상공인

“코로나19로 위기 소상공인 지원책 필요”

제주지역 자영업과 소상공인은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코로나19사태 이전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치달으면서 현재 벼랑 끝 위기로 몰렸다. 이들은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경제회복과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중장기적 소상공인회관 건립 필요=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인철) 회원들은 최근 4·15총선 출마자 중 지지도 5% 이상 후보자들에게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게 됐다.

박인철 회장은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긴급대출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있다”면서 “원스톱지원시스템을 구축해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소상공인회관 건립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 특별보증으로 간접지원에 치중돼 있어 직접지원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제주도는 소상공인을 위한 조직과 전문인력이 있지만 제주시와 행정시는 지원체계가 미흡해 보강해야 한다”면서 “특히 드림타워와 신세계면세점, 나인몰 등 대기업 유통업체가 제주진출을 시도하면서 연동·노형동 토종상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고, 제주골목상권 중장기

사이에 의하면 월당초 상권 17%, 제원아파트 인근 상권 15%, 누웨모루거리 상권 13%가 감소하는 등 크게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또 ▷대기업으로부터 지역상권과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 ▷지역화폐 발행 ▷농협상품권 사용처 확대 ▷고용유지 지원금 피해업종의 1인 또는 가족 사업자 적용 ▷대기업포털 및 블로그 광고비 상한제 실시 등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박인철 회장

강동우 대표

▶정치권 대책마련 집중해야=제주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여행사를 경영하고 있는 강동우 여행코퍼레이션 및 여행여행사 대표는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겪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강 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부의 초강력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은 제주방문 관광객 감소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여행사를 비롯한 도내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면서 “특히 도내 여행사 70% 이상이 존폐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큰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 농수산물 유통 판매 역시 온라인 판매는 소폭 늘었지만 시장이나 마트 등을 통한 오프라인 판매량은 급감하면서 도내 농수산물 유통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토론했다.

강 대표는 “언젠가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면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반드시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우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국내 소비운동을 펼쳐 내수경기를 살려야 하고, 특히 도내 농수산물 소비와 제주 등 국내여행 촉진운동 등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도내 29개 골프장이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골프관광객이 지역상권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셔틀버스 운행 제한 등을 통해 골프관광객이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언론3사 공동 취재단>

여가 활성화 조례 등 12건 개정 필요

제주도의회 올해 첫 입법평가위원회 회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는 올해 1차 입법평가위원회 회의에서 도민 여가 활성화 조례 등 12건이 조례 개정 및 개정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

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제1차 입법평가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서면회의를 통해 진행됐으며, 제주특

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등 23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가 이뤄졌다.

입법평가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여가 활성화 조례 등 12건은 조례 개정이 필요하거나 개정을 검토하도록 했으며, 제주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등 6건은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그 이행을 독려하는 한편 개정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3건은 다른 조례와 통합해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입법평가 결과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해 조례 개정 및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된다.

제주도의회는 올해 조례 제정(또는 전부개정) 이후 2년이 경과한 총 77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분기별 입법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른기자

4·15총선 후보 공약... 2면 / 군소 정당·무소속 후보 열전... 4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200403-중-106855호

제주권역외상센터가 여러분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드리겠습니다

▶ 권역외상센터란?

교통사고, 추락 등에 의한 다발성 골절·출혈 등으로 생명이 위험한 중증외상환자가 병원도착 즉시 응급수술을 포함한 최적의 치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진 및 의료기기 등을 갖추고,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상전용 치료센터입니다.

▶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 적용

권역외상센터에서 치료받는 중증외상환자에게는 최대 30일간 중증환자 산정특례가 적용되어 본인부담률이 5%입니다.

▶ 간호사 모집 (신입·경력)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s://www.hallahosp.co.kr>) 참조



제주한라병원 권역외상센터
 CHEJU HALLA GENERAL HOSPITAL
 (064) 740-5752

